



● 세계 최대의 도서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개막

'문화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세계 최대의 도서전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간 개최된다. 이번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는 2003년 도서전에서 대성황을 이룬 '영화 / TV' 관의 규모를 확대해 영상산업과 출판산업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80평 규모의 한국관을 설치·운영하며, 13개의 출판사가 직접 참가해 자사의 도서를 전시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이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참가하는 전례로 어느 때보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홍보관이 설치되며, 2005 주빈국 한국의 공식 기자회견이 10월 7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 베를린 국제 문학축제 열려

제4회 베를린 국제 문학축제가 9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 이틀간에 걸쳐 펼쳐졌다. 페터 바이스 예술·정치 재단이 베를린 페스트슈필레와 협력, 이번 국제 문학 축제를 진행했다. 라스 구스타프손과 빅토르 에로페에프를 포함한 전세계의 120여 명의 작가들이 주무대인 베르린 헤벨 암 우퍼 극장을 찾았다. 작가들은 도서관, 학교, 교도소를 찾아 문학의 유익함을 전했다. 본 축제는 9월 21일 남아프리카 여류작가인 안티에 크로크가 개막을 선언하며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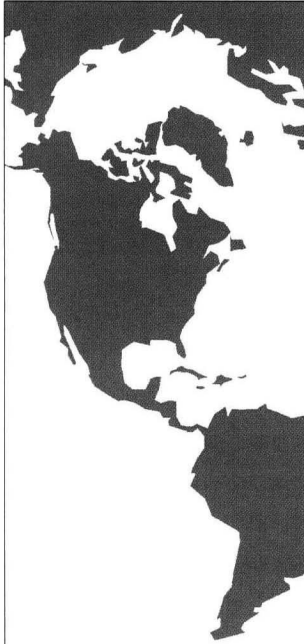
● 조엔 롤링 위협하는 프랑스 만화가 제프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만화가 제프가 돈방석에 앉았다. 새롭게 출간한 만화 디토프 시리즈 <나디아 결혼하다>가 2백만 부 이상이 팔려나간 것. 프랑스 '2004년도 베스트셀러'로 일찌감치 제프의 만화를 지목하는 분위기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차이퉁은 <개학시즌 도서목록Rentre littéraire>을 분석, "2004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지 프랑스인들은 알고 있다. 그것은 이미 8월 말에 결정되었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 책 역시 제프의 만화 <나디아 결혼하다>이다.

● 유럽 최고의 출판인은 영국 출판인

'유럽 출판 경쟁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출판인들은 기타 유럽 국가들의 출판인들보다 더 많은 도서를 출판하고,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 전역의 연간 도서 매출액은 270억 유로(4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이 유럽 대륙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영국 출판사들의 매출액은 지난 몇 년간 독일 출판사들의 매출액을 넘어섰으며, 새로운 EU 가입국가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의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다. 유럽의 평균영업이익은 15퍼센트 정도며, 영국의 평균영업이익은 20퍼센트 정도다. 매년 출판되는 도서종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율 역시 영국이 가장 높다. 한편 EU 회원 국가들의 도서출판 산업에는 14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다크 졸슈타트, 노르웨이 아셰호우크 문학상 수상

소설가 다크 졸슈타트가 노르웨이 아셰호우크 문학상을 수상했다. 다크 졸슈타트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가로, 그의 처녀작품은 1965년에 출간된 소설집 《소용돌이》이다. 40년이라는 창작기간동안 졸슈트는 25종의 책을 냈는데 그 중 15권이 소설이다. 졸슈타트는 이번 가을에 독일과 스위스에서 작품강독회를 갖는다.

● 덴마크, 도서 재수입 문제

덴마크 공정거래위원회는 “덴마크 독자들은 도서 공급자가 도서정가제가 없는 국가에 적을 두고 있더라도 덴마크의 도서를 정가로 구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도서정가제가 없는 스웨덴 말뚝에 있는 서점에서 덴마크 도서를 재수입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덴마크 서적상협회의 도서정가제 유지 입장에 반대하는 덴마크 공정거래당국은 현재 그 사안을 속제로 안고 있다. 덴마크의 최대 출판사 길덴달을 지목하며 자사의 시장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도서가 북클럽에서 더욱 싸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서점에서 정가를 고집한 것으로 비난하고 있다. 덴마크 공정거래당국은 북클럽용 도서가 출판돼 북클럽에서 싸게 판매되는 모순을 들며 도서정가제를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안은 대한 결정은 올 가을에 내려진다.

● 도서가 아니라 법을 금지하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미국 서적상 재단’은 올해의 금서 주간(9월 25일~10월 2일)을 이용해 미국의 애국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미국서적상협회 회원에게 발송된 전단에서 재단은 고객기록 수색영장에 반대한 Tattered Cover Book Store의 성공적인 투쟁을 담은 《당신의 권리를 읽어라》라는 26분짜리 다큐멘터리 상영을 포함하는 금서 주간 캠페인 전략을 강조했다. 재단은 《당신의 권리를 읽어라》를 서점에 적극 홍보, 판매하고 있다. DVD의 경우 35달러, VHS의 경우 30달러의 가격에 판매한다.

● 랜덤하우스 오디오북 매출 두 배로 증가

막스 아더의 《Forgotten Voices of the Great War》(랜덤하우스)의 오디오북 판매가 두 배로 증가했다. 막스 아더의 오디오북은 9월 둘째 주에 시상한 ‘Spoken Word상’에서 ‘올해의 오디오북 대상’을 받았다. 지난 4월 시상된 영국도서상에서도 ‘올해의 오디오북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이 도서는 종이책 비소설분야에서도 상을 수상했으며, 랜덤하우스 오디오북의 조 윌리엄과 엘리자베스 킹스턴 역시 이 도서의 마케팅 지원으로 상을 수상했다.

BBC 오디오북은 ‘올해의 출판사 상’을 수상했으며, 작년에 오디오북 시장에 뛰어들어 타이 워너는 알렉산더 맥콜 스미스의 《기린의 눈물》을 ‘최우수 요약 현대소설 분야’에서, 그리고 피터 메일의 《좋은 한 해》로 ‘최우수 원본 현대소설 분야’에서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영국 오디오북 시장은 전년 대비 6퍼센트 성장하였으며, 총매출액은 7,000만 파운드인 전년 대비 140억 원 증가했다. 그 중 4천700만 파운드는 성인용 오디오북, 2천400만 파운드는 아동용 오디오북에서 매출이 이뤄졌다.

문승현 |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부